

# 大學博物館의 機能과 役割\*

金 紅 男 \*\*

## 목 차

- I. 대학박물관의 수집기능
- II. 유물관리와 보존정책
- III. 연구의 기능
- IV. 전시의 기능
- V. 대학교육과 사회교육기능
- VI. 끝내는 말

## < 요약 >

대학박물관은 기능적인 면에서 일반박물관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즉 대학 박물관도 유물과 유물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조사·연구하여 전시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이라고 하는 특수한 교육환경속에 존립하고 그 주 대상이 대학인이므로 인해서 그 역할면에서는 일반 박물관과는 다소 다른 차원의 교육기능을 수행해야하고 또 그 수집·연구·전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일반박물관과는 범위와 방법, 그리고 성격을 다소 달리할 수 있다고 본다.

대학박물관은 대학인이나 일반인이 일반박물관에서 맛볼 수 없는 경험을 줄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일반대중의 문화교육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본다. 즉 대학이 운영관리하고 대학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해당 대학의 학생·교수·직원들이 주 대상이긴 하나, 일반인에게도 열려있어 한 지역의 훌륭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sup>1)</sup>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44회 춘계학술발표회 발표문(2001. 4. 20)

\*\* 이화여대박물관장, 미술사학과 교수

1) 본 발표는 많은 부분 이대박물관을 실례로 들고 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지난 6년 가까이 몸담고 있는 관계로 그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대학박물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대 박물관은 도요지밭굴이라는 고고학적인 업적을 오래동안 쌓아 오기는 했지만, 그 소장품의 성격으로 보아서 미술박물관 즉 미술관에 가깝기 때문에 이 발표가 미술품중심으로 그리고 미술사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 I. 대학박물관의 수집기능

박물관이 수집을 중단하는 때 그 생명이 다 한대라고 까지 말 할 정도로 박물관이 소장품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소장품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박물관의 중요한 존립이유중의 하나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집의 기능은 박물관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인 전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학박물관의 관장과 학예실은 끊임없이 수집정책과 전시정책을 연관시켜 숙고하여야 하겠다. 수집은 유물을 보존한다는 측면을 넘어서서 소장품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해당 박물관의 성격을 시대에 따라 재규정해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적 시각과 교육적 사명으로 전시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박물관들이나 일반박물관과의 차별화에 대하여, 기존 소장품의 특성 살리기에 대해서, 혹은 새로운 방향을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학의 특성과 중점분야에 대해서 등등이다.

### ○ 수집정책의 필요성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지난 4월 10일부터 6월 말까지 “현대미술수집 5년”이란 제목하에 특별전을 열고 있다. 그리고 이 전시 바로 전에는 “제3의 전통: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라는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다. “현대미술수집 5년”은 그 제목자체가 이대박물관이 현대미술을 수집해 왔다는 것을 밝혀준다. 그리고 전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자대학교로서의 전통과 특성을 살려서 이대박물관이 대한국의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그들을 프로모트하려는 수집정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전시는 이대박물관이 현대미술의 전시도 꾸준히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또 한가지는, 관람객들이 이 전시를 통해 이대박물관이 “박물관”이란 이름의 기관과 현대문화와는 관련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려는 수집정책을 세우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흥미로운 현상은 고전미술을 취급하는 곳은 박물관으로, 근·현대미술을 취급하는 곳은 미술관으로 구분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한국적 현상, 그러한 차별의 배후에는 서양문화와의 접촉으로 태어난 서양적 미술품과 서양인의 미술품은 높은 차원의 미술이라고 부르고, 그 이전 전통사회의 산물은 미술이라기 보다 다른 차원의 혹은 다소 격하된

골동이라고 보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복과 양복, 갓과 모자, 한옥과 양옥, 영어와 한글 등의 대칭구조에서 나타나는 한국인들의 자기비하의 그 역사가 길다. 통일신라시대에 중국문화와 한문이 물밀 듯이 들어 왔을 때와 한일합병이후의 한국지식인들간의 선민주의 사상에서 이미 그러한 피식민 근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구분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20세기전과 20세기 후로 단절시키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그 뿌리를 흔들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현대한국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단절로 인한 주체의식의 상실과 가치관의 혼돈에서 빚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한다. 구미에서와 같이 근.현대 이전과 근.현대의 역사가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지닌 역사라는 것을 박물관·미술관인들도 자각하고, 그 역사적 연속성을 찾아 주는 것은 사학자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박물관·미술관이 안고 있는 과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를 수집, 연구, 전시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제3의 전통: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의 전시를 통해서도 이화여대박물관이 자랑해 온 도자 콜렉션의 범위와 성격을 재 규정하고 나아가 한국도자기 연구와 수집이 청자·백자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도기의 전통을 도자의 역사안으로 끌어 들이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전시를 기해서 많은 옹기를 기증받을 수 있었고 또 구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실험적이고 학술적인 성격을 띤 수집·전시정책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일반박물관·미술관보다는 대학박물관에서 더욱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각 대학박물관은 설립목적에 따라 수집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설립목적과 수집방향이 없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규모와 재정능력, 그리고 기존소장품의 역사적 평가에 따라 수집정책을 세워 나가게 된다. 그리고 타 대학박물관과의 차별화·특성화도 시도할 수 있겠다.

대학박물관도 일반박물관·미술관과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그 수집정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하더라도 수집보존가치를 먼저 찾아내어 수집을 하는 것도 미술관·박물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는다. 시대는 변하고 유물과 미술품에 대한 인식과 소장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예로서 60년대 이전까지 민화는 미술관의 정규수집종목은 아니었다. 문인회계열의 회화나, 일부 알려진 직업화가들의 작품과 청자·백자의 수집에 몰두했던 시절에는 궁궐에서 나온 화려한 병풍화들도 민화의 부류로 취급되어 청계천골동상들의 손에서 값싸게 팔리고 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고인이 된 조자룡선생나 한창기선생, 그리고

제한 외교관서클등 한국민예애호가들의 노력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조자룡씨 자신도 민화와 민속공예를 전문으로 한 에밀레미술관을 김포근교에 세웠었다는 것은 (물론 지금은 없어져 버렸지만) 이제 박물관역사의 한 장이 되었다. 지금은 조자룡 콜렉션의 최상급은 대다수 호암미술관으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석물 또한 미술관보다는 민속 박물관의 영역에 속했었다. 또 한가지 이대박물관은 3년 전 “우리 옛 돌조각의 힘” 이란 전시로 석물을 한국 전통조각예술로서 부각시켜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전통석물의 미를 재발견하게 되었고, 기존의 석물수집가도 많은 힘을 얻었다고들 한다. 그 결과 돌조각 박물관도 생기고, 미술관의 수집종목으로 굳게 자리잡게 되었다.

### ○수집정책의 국제화

또 하나는, 한국의 박물관들은 지난 반세기동안은 한국의 고미술을 찾아 수집보존하는 데 힘을 총력을 기울이느라 사실상 한국 외의 다른 나라의 미술품을 수집할 여유가 없었다. 이제 최소한 국내에 있는 한국고미술에 한해서는 각 미술관·박물관에 자리들을 찾았고 고미술시장도 안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미술관들이 한국미술만 수집·전시하는 이 상황은 국제적인 시대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고 본다. 이제 한국만이 최고라는 국수주의적 교육에서 벗어 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동양권의 미술만에라도 눈을 돌릴 때가 온 것 같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시대를 열면서 동양미술실도 마련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현재는 약간의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미술품이 기존소장품속에 들어 있긴 하나 미미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수집계획을 세워야 하리라 믿는다. 지난 15년간 한국미술의 가격이 급등하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인도미술등의 동양미술품이 한국미술품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단 외국으로 부터의 미술수집은 외환법·관세법등 법률적인 이유로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국립박물관이 아니면 실행하기 힘들다. 대학박물관의 경우는 학교행정당국의 의식문제, 부처간 형평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등으로, 수집정책의 이러한 국제화가 용이하지는 않겠다. 이대박물관의 경우는 지난 5년간 도자기 콜렉션만이라도 국제적인 것으로 키워보려고 노력해 왔고 한국과 가장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는 중국도자를 우선순위로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부언할 것은, 수집정책결정과 수집대상미술품의 감정과 중요도 타진은 미술관의 인력중 관장과 학예원의 몫이다. 유물의 진위감식력은 장기간의 훈련을 요구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들의 결정에 따라 한 박물관의 방향이 결정되어 가는 셈이 된다.

## II. 유물관리와 보존정책

과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박물관의 지대한 사명이며 역할이다.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관리체계가 잡히지 않아 적절한 온도·습도와 빛의 환경을 조성하지 못해 유물이 부식하고 변색하거나, 방역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벌레가 생기거나, 사진부착된 목록카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도난·유실은 물론이고 유물의 위치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이라면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유물관리

미술관·박물관은 소장품의 유물분류와 각 유물에 대한 전문적인 사진부착카드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물반입즉시 훈증과정과 촬영작업을 거쳐서 사진카드등록을 시작하는 동시에 유물분류에 따라 수장고내의 보관위치를 정한다. 그래야만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언제라도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전시준비를 용이하게 한다. 제대로 된 수장고를 갖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술관건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유물의 반출·반입이 자유롭고, 유물의 전 시설까지의 동선, 사무실로 부터의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디자인은 진동을 견디고, 인화물질이 아닌 자재를 사용하고, 은행금고정도의 보완장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충고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유물관리직은 박물관·미술관에서 유물관리 경험이 있는 자로서, 유물정리, 카타로그, 전시품 취급과 보존상태 점검, 대여품 수속절차, 미술품 반입·반출, 운송 등을 맡은 경험이 있는 자, 취급 비술품의 미술사적 지식을 일반인 이상으로 갖춘 자이다. 이 경우는 박물관학을 이수한 자가 바람직하다.

### ○기증시대의 도래와 수집·보존대비책

주거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주거공간은 날로 좁아져가고 비싸져 가고 있다. 한국은

이제 아파트시대라고도 말한다. 상당한 재력가도 소집품을 제대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기에 역부족이 될 수 밖에 없다. 각 가정이 지니고 있던 옛 병풍, 가구, 그리고 의복들, 또 장독들은 매년 이사할 때마다 파손되고 없어져 버리고 있다. 그러한 물건들의 문화적 가치를 일반인이 모르기도 하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박물관·미술관 기증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행동에 채 옮기지 못할 수도 있다.

재질에 따른 과학적인 보존은 매우 중요하다. 종이, 목기, 직물, 사진 등 향온·향습의 환경을 요구하는 유물들, 또 그 크기가 일반개인소장가로서는 부담이 되는 유물들, 이렇게 적절한 보존환경이 필요한 유물들은 결국은 애장가들의 손을 떠나 박물관·미술관으로 가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박물관·미술관들은 그러한 소장품들을 찾아내어 보존의 시기를 놓치지 전에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화여대박물관내에 최근 생긴 담임복식미술관의 경우는 복식과 장신구의 수집에 평생을 바친 한 소장가의 결실로서 보존의 어려움과 대를 이어 수장을 지속할 수도 없는 처지에 영구한 보금자리를 물색하게 되었고, 결국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지를 보인 이화여대에서 등지를 트게 된 것이다. 직물과 복식은 향온·향습·방역의 조건속에서 수장되고 전시되어야 하고, 빛에 약하므로 전시중에는 적절한 조도를 요구하고 전시품을 정기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로 보존조건이 까다롭다. 이러한 일은 개인소장가로서는 불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대학박물관도 신축, 증축, 개축을 할 경우 수집정책과 보존정책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수립해야 할 것이다.

### ○보존과학자의 양성

에밀레종은 보존문제로 최근 전혀 타종을 하지않고 있다. 며칠전 신문에 불국사의 석가탑이 대기오염과 산성비로 인해 부식되어 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렇다면 경주남산의 마애조각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외부에 있는 석물문화재도 미술관환경에서 보존되지 않으면 안될지도 모르게 되어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국박과 호암 그리고 과천 현대미술관 외는 보존과학실이 없는 실정이다. 변색하고 변질되기 쉬운 직물·종이류의 보존처리도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

보존과학직은 화학등 관계과학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전공학문을 미술품의 보

존에 응용한 경험이 있는 자이다. 스미스소니안, 메트로폴리탄, 펜실바니아주립대학, 하바드대학미술관등은 2명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 보존과학자들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하바드대학의 경우는 대규모 보존과학연구소가 별도로 세워졌다. 미국박물관·미술관들은 동양미술 특히 서화의 보존·보수에 한해서는 오랫동안 일본인이나 일본에서 장기간의 훈련을 받은 자국인을 쓰고 있다. 한국도 호암미술관의 경우는 서화보존을 위해 일본서 훈련받은 전문인들이 포진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금속과 목기정도는 현 보존과학실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서화소장품보존을 위한 인력은 확보되지 않은 상항으로 서화소장품의 보존상태로 보아 해당인력과 설비를 시급히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놓여 있다고 본다.

### Ⅲ. 연구의 기능

대학박물관은 그 소장품의 성격에 따라 학예연구원의 전공분야와 연구영역이 결정된다. 고고유물이 있는 대학박물관은 고고인류학 전공인, 문헌중심의 사학적 자료가 있으면 역사학전공인, 미술·공예품도 있으면 미술사학 전공인, 또 이러한 전공인을 다 필요로 하는 다양한 소장품을 보유한 대학박물관도 있겠다. 소장품의 분류, 유물카드작성에서부터 소장품을 활용한 전시기획, 전시실 라벨·설명문작성, 나아가서 전시도록출판에 까지 소장품의 연구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의 많은 박물관·미술관들은 블레틴이나 학술잡지를 출판하고 학예원 즉 큐레이터들로 하여금 소장품관련 연구결과를 신도록 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도 박물관신문과 미술자료라는 학술잡지를 출판하고 큐레이터들과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면 이러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고는 전문적인 깊이가 있으면서 또 교육적인 전시를 기획하기는 힘들다. 즉 자료의 학술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많은 종합대학은 그러한 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전공학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공학과의 졸업생들이 박물관·미술관의 전문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이들 학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로서, 미술사학과를 예를 들면, 미술사는 미학 혹은 예술학과 달리 실제 미술품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므로 박물관·미술관들은 미술사학도들의 학위논문을 위한 조사연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 IV. 전시의 기능

음악당에서 악보가 있고 피아노가 있어도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박물관·미술관도 유물·미술품으로 감동적인 연주 즉 전시를 하지 않으면 그 유물과 미술품들은 생명력을 얻지 못하고 사장된 셈이나 마찬가지이다. 또 음악연주와 마찬가지로 전시 또한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유물의 아름다움이나 역사성을 재발견하여 이를 창조적으로 전시실에서 연주해 낼 수 있는 특별한 감각과 열정, 그리고 기획·연출력을 가진 자가 가장 바람직한 학예원 즉 큐레이터의 상이다. 특히 미술박물관 즉 미술관의 전시대상은 역사유물, 민속유물, 자연사유물, 산업유물과 달리 특별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품이다. 그러므로 아름답지 않게 나열된 전시설치는 전시된 예술작품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모독이라고 까지 볼 수 있다. 또 악보를 잘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연주를 맡길 수 없는 것과 같이 전시도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미술의 내용을 아는 미술사 전공인이라 해서 좋은 큐레이터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미술에 대한 사랑과 그 역사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전시를 통해 살려낼 수 있는 학문적 깊이와 안목, 그리고 미술관경험이 있어야 한다. 좋은 전시는 마치 좋은 음악과 영화처럼 우리에게 감명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에 새로운 활력과 풍요로움을 안겨 줄 수 있다.

대학박물관의 전시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고 모두 훌륭한 공헌을 할 수 있다. 각 유물은 그 예술적·역사적 진가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전시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라벨과 설명문들이 전시품을 압도하거나 미관을 해치게 해서는 안된다. 근·현대 미술의 전시의 경우는 미술품에 대한 극도의 청교도적 존경으로 아예 간단한 라벨 외는 거의 설명문을 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술관중 고미술을 주로 취급하는 미술관은 박제되고 퀘퀘묵은 곳, 이질적인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제 고미술이 현대인의 생활과 정서속에 어색하지 않게 들어 설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건물의 전체적인 실내디자인과 상설전·기획전이든 전시디자인과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대상이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중 대학박물관은 그 주 관람객이 20대의 젊은 대학생들이므로 현대감각을 살려주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본다.



## V. 대학교육과 사회교육기능

대학박물관은 대학생과 대학교육의 책무를 맡은 교수들이 대학에서 지식을 공급하고 수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더욱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지성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센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박물관은 해당 대학이 특정한 전공분야에서 더욱 뛰어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과 강의일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미술대학의 이론수업, 고고학의 수업, 화학과 학생에게 보존과학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미술의 이해 등 교양과목등에 적극참여하고, 관련과목 수업에 박물관의 전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또 박물관 자체 내에 스타디콜렉션을 개발할 수도 있어야 겠다. 최근 미국이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의 자연물수집실 (Nature Lab)에서의 미대1학년 학생들의 그림수업을 참관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sup>2)</sup>

일반대중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자면, 문화유산·미술품을 보존하고 발굴하고,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평가하는 학술적 역할만큼 중요한 역할이 문화인·예술인과 일반대중의 교육이다. 박물관·미술관이 교실과 다른 점은 실물이 있다는 것이다. 실물을 적극 활용하지 않고 전시실은 방치한채 강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두고 강의하면서 박물관의 교육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오인하는 박물관이 상당 수 있다.

대학박물관도 상설전과 특별기획전을 통해 대중에게 미적 향유의 장을 만들어 주고, 역사적 의식을 고취하고, 미적 감성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창의력을 키워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어린이의 감성교육 (EQ)은 특히 중요하다. 상설전과 특별기획전 모두 가능하면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러한 책임을 맡을 전문인력의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예로서, 미술품이 주인 대학박물관은 교육 쪽에 특별한 관심이 있거나 미술교육학을 부전공한 자 혹은 미술사부전공으로 미술교육학을 전공한 자가 바람직하다. 미술품에 관해 유년부터 성년까지 다양한 방문객의 미술·미술사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미술관 경험의 소지자가 바람직하고 최근 매우 부각되는 전문직이다.

2)최근 미국의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을 방문했을 때 자연물수집실 (Nature Lab)에서 미대1학년 학생들의 그림수업을 참관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 Ⅵ. 끝내는 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상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대학박물관은 주 관람객이 20대의 젊은 대학생이며 그들이 대학에서 지식만을 주입받고 졸업해 버리는 학생들이 아니라 EQ수준이 높고 자기문화정체성을 가진 저성인으로 키워내는데 한 몫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 한가지는 대학의 교수들의 교양과 문화수준을 높여주는 일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박물관들은 많은 면에서 일반박물관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할까지 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또 나아가 이 나라의 문화적 문제들을 박물관 고유의 해법으로 풀어 나가는 데 일역을 할 수 있다는 책임감과 자긍심도 우리들 스스로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

## Functions and Roles of University Museums

**Kim, Hong-Nam**

University museums are not so different in roles and functions from non-academic museums. They also have to fulfill educational roles and carry out functions of collecting, research,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and exhibition. But one important distinction is that their key audiences are not the general public but the students in their 20s and that they should be prepared for these college students' youthful outlook and cultural and intellectual needs in contents development and in manners of presentation.

Korean students from their early teens go through examination hells with so little cultural exposures with their EQ level rapidly sinking. The collegian time is the first and probably the last period to most male Korean students are better off as their society is less rigid, yet the importance of having a richer college life cannot be overemphasized, since they are much less inhibited and open to the cultural and the artistic stimuli while on campus. University museums which fail to attract student visitors do need to go through serious self-examination to find reasons and solutions to rectify the situation and transform themselves as active participants in campus life as the center of art and culture.